

관광객들, 주말휴가 첫번째 선택지로 연변 찾는다

음력설 기간 외국인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



중국조선족민속원 입구 / 자료사진

2024년 11월부터 우리 나라가 한국에 대해 시범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 이래 연변은 한국 관광객들의 인기 휴양 목적지로 되었다.

길림성에서 외국 관광객을 가장 많이 접대하는 지역인 연변은 독특한 문화적 매력, 풍부한 관광자원과 편리한 교통 조건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올해 음력설 연휴 기간 연길공항의 출입국 인원이 연인수로 1만 3,000명에 달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고 한국 국적 관광객 비율이 무려 88.1%에 달했다. 연변상운국제관광회사 경리 리위는

한국 관광객들은 연변에 와 주로 장백산, 연길, 도문, 퉁정 등 지역을 찾는 반면 그들은 연변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연변소 불고기, 꼬치구이, 샤브샤브 등 현지 음식을 선호한다고 소개했다.

리위는 현재는 관광 비수기이지만 4월부터 10월까지의 한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성수기라면서 현재 매주 한국 관광단체가 성수기를 피해 연변을 찾는데 주로 서울, 인천, 부산, 청주 등 지역의 한국 관광객이 위주이며 중장년층은 단체여행을 선호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유여행을 선호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변의 언어환경은 한국

관광객과의 소통에서 장벽이 없고 관광상품이 날로 풍부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한국 관광객을 흡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수기 관광이 새로운 추세로 되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조선족민속원은 여전히 시골벽적이며 낭만적인 분위기가 여전했다. 일일 관광객수도 6,000명 이상 유지하고 있고 주말에는 9,000명을 훨씬 넘는다.

민속원 마케팅 총감독인 주보곤은 현재 여전히 남방 관광객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주변 도시 주민들이 주말에 연길을 찾아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관광지는 3, 4

월 비수기에 내부를 승격한 후 5월 1일전에 새롭게 오픈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더 풍부한 감각 체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춘에서 온 관광객 류요는 어머니와 함께 민속원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장춘에서 연길로 오는 고속철은 매우 편리하며 연길의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음식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주 연길에 와서 주말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음력설 연휴가 끝나고 성수기를 벗어나 여행을 하게 되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 연변조간

비암산룡문양심객잔 대상건설 곧 재개

최근 룡정시비암산룡문양심객잔(客棧) 대상건설 현장에서 로동자들이 제설, 자재 준비 등 작업을 하면서 건설 재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총투자액이 1억 6,800만원인 룡정시비암산룡문양심객잔 대상은 부지면적이 약 10만 1,400평방미터, 건축면적이 4만 26평방미터이다. 대상은 총 2기로 나눠 건설된다.

대상 책임자인 왕계위에 따르면

룡정시비암산룡문양심객잔 대상은 지난해에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사량의 30%를 진행했다. 대상은 7월 말까지 주체 건설을 마무리하고 11월말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수할 계획이다. 대상이 완공되면 비암산 문화관광 대상의 전체 관광객 수용량이 년평균 연 130만명에서 연 18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약 2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 김영화기자



비암산룡문양심객잔 효과도

돈화시 3곳, 고등급 길림성풍경구에 입선

최근 길림성문화및관광청에서는 25개 도시, 진, 촌을 고등급 길림성 풍경구 도시, 진, 촌으로 확정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돈화시 안명호진이 5A급 길림성풍경구진에, 돈화시 홍석향 중성촌,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이 4A급 길림성풍경구촌에 입선되었다.

안명호진은 편리한 교통, 풍부한 물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며 삼림피복률이 81%에 달하고 공기중의 음이온 함량은 도시의 500배에서 1,000배에 달하는 천연산소 카펫으로 알려져 있다. 안명호진은 이미 ‘안명호향 12경’ 향촌관광산업 집군을 건설하였는바 이곳은 양생온천, 도교문화, 런투 구경, 물고기 요리 먹기, 전원 채집, 레저휴가, 농사 체험, 연학, 팀 건설 활동, 민속, 민박 등을 일체화한 종합성 휴가풍경구이다. 근년에 안명호진은 선후하여 전국향촌관광중점진, 전국삼림문화타운, 전국특색경관관광명진, 전국일촌일품국가급시범진,

전국문명진, 국가급생태향진 등 영예칭호를 획득했다.

중성촌은 돈화 시내에서 5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전형적인 중국 조선족 마을이다. 마을에는 조선족 특색민가들이 건설되어있어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고 독특한 조선족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고풍스러운 조선족 민박집에 투숙하여 진정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조선족 민속문화의 독특한 운치를 느낄 수 있다.

소산취자촌은 안명호 국가급 습지보호구에 위치해있다. 촌에서는 풍부한 자연자원, 천연적인 생태경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천연식품, 순박한 민속풍정을 내세워 각지의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다. 근년에 소산취자촌은 선후하여 길림성 향촌관광 5A급 경영단위, 전국생태문화촌, 전국향촌관광중점촌, 전국문명촌, 중국 가장 아름다운 레저향촌 등 영예칭호를 받았다.

/ 연변뉴스넷

천년의 도자기 역사를 품은 도시 - 경덕진

장강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경덕진은 역사적으로 광둥의 불산, 호북의 한구, 하남의 주선진과 함께 우리 나라 4대 도자였다.

장강의 남쪽, 남령의 북쪽, 강서성 동북부에 위치한 경덕진은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고성이다. 경덕진은 기원전 200년 진나라 때 구강군에 속했고 한나라 때는 파양현(鄆阳县)에 속했으며 창남진이라 불렀다.

송나라 황실이 남쪽으로 이주한 후 북방의 많은 도자기 장인들이 경덕진으로 밀려들었다. 당시 경덕진에서는 벌써 ‘옥처럼 맑은’ 청자를 만들었는데 그 공법이 정교하고 수법이 세밀하기 그지없었다. 중국 최초의 도자기 전문

서인 《도기(陶记)》도 이때에 편찬되었다.

800여년전의 원나라 때 경덕진은 중국에서 도자기 제조 기술이 가장 높은 도요(陶窯)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나라 조정의 도자기 관리기관인 ‘부량자국(浮梁瓷局)’도 경덕진에 설치되었다.

그 뒤 명나라와 청나라 때 경덕진은 줄곧 도자기업의 중심지였으며 황궁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관요(官窯)도 모두 이곳에 있었다. 당시 경덕진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가 번창한 중국 4대 유명 도사이자 명실공히 ‘도자기의 도시’였다.

원나라 때 제조되어 명나라와 청

나라 때 최고의 번성을 누린 청화자는 백색과 청색이 어우러진 도자기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아 ‘영원히 지지 않는 청색의 꽃’이라 불린다.

‘우리를 박은 도자기’라 불리는 령롱자는 투각기법을 리용해 도자기에 청색으로 온갖 무늬를 새겨 ‘청화령롱자’라 불리기도 한다. ‘동양예술의 보석’이라 불리는 분채자는 부드러운 색상으로 그린 전설 중심의 온갖 스토리를 담아 중국풍이 다분하다.

안색유자는 유료에 산화금속을 추가해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자연스러운 온갖 색채의 무늬가 형성되는 도자기이다. 안색유

자는 굽는 과정이 어렵고 색채가 아름답다고 해서 ‘인간이 만든 보석’이라 불린다.

1,700여년의 도자기 역사는 경덕진에 풍부한 도자기 문화를 부여했다. 경덕진이 보유한 정교한 도자기 제조 공법과 독특한 도자기업 풍속, 소중한 대 도자기 문화 유적은 도자기 역사 연구에 참고적 가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경덕진에는 30여곳의 고대 도자기 문화 유적이 보존되어있다.

경덕진 도자기업의 흥성은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경덕진은 예로부터 ‘강남의 대표 도시’로 불렸다. 원나라와 명나라, 청나라 때 번창한 도자기업으로 상인들이 경덕진에 밀려들면서 많은 거리가 조성되고 건물이 축조되었다.

지금까지 경덕진에 보존된 명나라와 청나라 때 건물은 100여채가 넘는다. 다수가 당시의 관리와 부자들의 저택이었던 이런 건물들은 규모가 웅장하고 조각이 정교하며 풍격이 독특해 고건축 연구와 도시발전사 연구에 중요한 참고적 가치를 제공한다.

‘력대 도자기를 한 공간에 모으고 천년의 역사를 설명’하며 도자기의 도시 문화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1980년대에 경덕진은 근교에 풍격이 독특한 명소인 고도자력사박물관을 조성했다.

고대 도요와 명청시기 건물, 도자기 역사박물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명소에서는 도자기 제조 과정을 직접 보고 경덕진의 도자기 공법과 고대 도요의 품도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경덕진의 거리를 거니노라면 풍부한 도자기 유적지와 옛스러운 명청시기 고건물, 곳곳에 가득한 온갖 도자들이 경덕진의 풍부한 도자기 문화를 말없이 설명하는 듯하다.

/ 국제방송

산촌 관광의 재발견, 협곡 따라 운행하는 운남성 ‘공중 스쿨버스’



▲ 운남성 선위시 보립향 니주하촌의 소학생들이 공중 케이블카를 타고 등교하고 있다.

지난 23일, 운남성 선위시 보립향 관제완소학교가 개학을 맞았다. 진흥합은 관광지 셔틀버스에서 내려 수직 268미터 길이에 달하는 관광엘레베이터를 갈타란 후 케이블카로 200여미터를 더 올라갔다. 그후 1킬로미터 정도를 더 걸어 약 30분 만에 학교에 도착했다.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니주하촌은 운남과 귀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니주하촌에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산 사이로 협곡이 나오는데 한쪽은 운남성 선위시, 다른 한쪽은 귀주성 롄판수이다.

니주하촌의 학생들은 수년간 깊은 산골짜기 절벽 꼭대기에 있는 학교로 가기 위해 협곡을 따라 산을 올랐다. 이 가파른 길을 따라 학교에 가려면 왕복 약 6시간이 걸렸다.

이런 험난한 등교길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난 2017년 선위시는 ‘니주하 대협곡 생태문화관광 대상’을 도입하고 다음해에 절벽 엘레베이터 건설을 시작했다.

/ 신화사

2022년 관광지가 완공돼 운영되면서 높이 268미터의 엘레베이터와 약 200미터가 넘는 고공 케이블카가 차례로 도입됐고 니주하촌과 관제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 니주하촌의 아이들에게 절벽 꼭대기까지 직행하는 ‘공중 스쿨버스’가 생긴 셈이다.

니주하촌 주민 진위금은 일찍 지역 관광의 발전 잠재력을 보아내고 4개의 방을 활용해 객잔을 만들었다. 또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해 연간 4만~5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진위금은 “올해 객잔을 확장해 방을 20개로 늘리고 싶다.”며 날씨가 좋을 때는 거의 만실이고 식사를 하러 오는 관광객들로 마당이 늘 북적인다고 말했다.

한때 아무도 찾지 않던 작은 산촌이 관광객으로 붐비고 소득을 올리며 부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 니주하 대협곡 관광지의 연간 방문객수는 30만명(연인원), 관광 매출은 약 2,000만원에 달했다. 관광업이 발전함에 따라 니주하촌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업종도 농가력, 카페, 호텔, 민박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다. 외지로 일하러 나갔던 많은 마을 주민들도 속속 귀향하는 추세다.

이곳에서 나서자란 니주하대협곡 관광지개발회사 회장 채용은 창업에 성공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의 건설사업에 뛰어들었다.

채용은 “수직 관광 엘레베이터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등교길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 마다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